
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.4(금) 조간부터 보도 가능</h2>	
---	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,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및 정보화전략실			
책 임 자	[금융위원회] 박주영 팀장	담 당 자	[금융위원회] 최성규 사무관 (02-2156-9694)	
	[금융감독원] 권오상 국장 서형복 국장		[금융감독원] 윤종욱 팀장 (02-3145-8320) 류길상 팀장 (02-3145-5430)	
배 포 일	2015.12.3.(목)	배 포 부 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5매

**제 목 : 금년 12월 4일부터는 「통합연금포털」에서 우체국 연금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.**

## 1. 주요내용

- ☐ '15.12.4(금)부터 「통합연금포털」(<http://100lifeplan.fss.or.kr>)에서 우체국 연금(개인연금보험)도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시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'금융 개혁의 일환'으로 「통합연금포털」('15.6.12. 오픈) 조회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
  - 은행, 증권, 보험 등 83개 금융회사와 3개 공제사업자(신협, 수협, 새마을금고)를 추가하여 현재 86개 연금사업자의 연금정보가 제공
- 이번에 금융감독원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으로 우체국 연금 정보까지 통합연금포털에 연계됨에 따라 87개 연금사업자의 연금정보가 제공

## 연금포털 가입 및 조회 현황

- ① (가입자) 현재 약 76,000명 가입되어 있으며 '15.7월말 대비 34% 증가
  - ② (조회자수) 연금포털에 대한 일일 평균 조회자수는 약 2,300명
- ⇒ 우체국, 국민연금공단, 사학연금공단 등 연계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및 조회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

## 2. 기대효과

- ☐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\*도 「통합연금포털」에서 연금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대비 재무설계가 가능

\* 우체국 연금보험 규모('15.9월 기준) : 가입건수 55.7만건, 적립금액 15조 4,893억원

-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도 본인의 다른 사적연금(은행, 증권, 보험 등)의 계약정보(연금개시일, 적립금 등)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,
-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,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기초로 합리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게 됨

## 3. 유용한 기능[미수령 연금 확인 등]

### ① 미수령 연금 확인

- 장기간 가입·운용하는 연금상품의 특성상 가입자가 계약사항을 잊고 있었거나 주소지,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금개시일이 지났으나 통지를 받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
- 「통합연금포털」을 통해 가입자가 수령하지 않은 연금액을 확인하거나 연금수령시 세금효과\*를 추정할 수 있어, 가입자가 가장 적합한 시기에 연금수령을 할 수 있도록 지원

\* 연금개시 시점별 소득세율 : 55세~70세 5.5%, 70세~80세 4.4%, 80세 이상 3.3%

## 2 연금저축상품 선택 정보

- 가입자의 연금정보 조회뿐만 아니라,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\*가 가능한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,
    - 각 연금저축상품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
- \* 세액공제율 :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. 단, 종합소득금액이 4,000만원 이하이거나, 총급여액이 5,500만원 이하인 경우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

## 4. 향후 계획

- (국민연금) 국민연금공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 정보를 「통합연금포털」에 연계하여 '16.1분기 중으로 조회 서비스 개시 예정
  - ※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정보와 사적연금정보를 원활히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서(MOU)를 체결('15.10월)
- (기타) 사학연금공단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금정보도 「통합연금포털」에 연계하여 '16년 상반기까지 조회 서비스 개시 추진
  - 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'15.6.11. 보도자료(통합연금포털 오픈-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)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1] 소비자가 처음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

[붙임2] 연금포털 주요 활용사례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, <http://www.fss.or.kr>



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려겠습니다

## 붙임1

## 소비자가 처음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

### 1단계

####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

- 홈페이지(100lifeplan.fss.or.kr)에 접속
- ※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준비



### 2단계

#### 회원가입

##### <서비스신청 및 이용동의>

- 본인의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신청
-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(공인인증서 전자서명)

##### <개인정보 입력 및 회원가입>

-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록
- 본인의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등 연락처 입력



### 3단계

#### 연금정보 확인가능 알림

- 본인의 연금정보 확인가능시(3영업일 소요) 이메일 안내



### 4단계

#### 공인인증서 로그인

-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접속
- 홈페이지 우측상단 메뉴 중 '내연금조회' 및 '노후재무설계' 클릭

※ 최초 이용시에는 3영업일이 소요되지만, 이후 다시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

### ① 한번에 조회 가능

“(A씨) 예전에는 여러 금융회사(은행, 증권, 보험)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해야 했었는데 한번에 조회하니 정말 편합니다.”

- 퇴직·개인연금 정보를 83개 금융회사 및 3개 공제사업자로부터 한번에 조회할 수 있어 **사용자의 편의가 크게** 제고되었고,  
- 여러 계약사항을 **통일된 기준**으로 **조회함으로써 상품간 비교도** 용이

### ② 미수령 연금 확인

“(B씨) 오래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했는데, 최근에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연금포털을 통해 계약사항을 확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”

- 장기간 가입·납입하는 연금상품의 특성상 가입자가 **계약사항**에 대해 잊고 있었거나 주소지,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금개시일이 지났으나 통지받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  
- 「통합연금포털」에서 이를 확인하여 연금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

### ③ 노후 설계

“(C씨)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부터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노후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.”

- 각 연금의 연령별 **예시연금액**,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**추정납입액**을 기초로 하여 **합리적인 노후설계**가 가능